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41호

스포츠 학폭

‘학폭’ 논란된 배구계, 실제 운동부 생활 실태는 어떨까

강민정 팩트경제신문 기자

학생선수 폭력 80%가 선배·동료 괴롭힘

정윤호 강원일보 기자

폭력 가해 선수, 내년부터 ‘체육특기생’ 지원 못한다

계훈희 YTN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짓는 건설업체, 사유지 무단 침범

지성호 연합뉴스 기자

칼럼기고

체육의 공정과 상식에 대해

김병선 충북도체육회 사무차장

해외 스포츠 뉴스

‘언론 통제’ 베이징올림픽…누구를 위한 대회인가

국제 핸드볼연맹, ‘성 상품화 논란’ 비키니 규정 → 반바지로 변경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www.sportscm.org

팩트경제신문
강민정 기자
2021.11.04

‘학폭’ 논란된 배구계, 실제 운동부 생활 실태는 어떨까

“운동부 자체가 폭력·폭행이 행해지기 좋은 환경이에요. 훈련 환경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후 대처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등 7년 동안 ‘엘리트 배구인’으로 살아온 A씨의 발언이다. 현재 운동을 그만 두고 ‘일반인’이 된 A씨는 중·고등학교 운동부 생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최근 배구선수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학폭) 폭로를 계기로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불거져 그 운동부 내 학폭 실태에 많은 이목이 모이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월 16일 서울 마포구 KOVO 회의실에서 ‘배구계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폭 연루자에게 영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규정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신인 드래프트(선수 공개 선발 제도) 시 학폭 관련 서약서를 받고, 향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며 “이는 학폭을 저지른 선수를 프로 무대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통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먼저 학폭 논란의 한 가운데 선 이재영·다영 자매는 자신들의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들은 뛰어난 경기 실력으로 배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쌍끌이 어선’이었지만, 논란 이후 이들의 모습은 앞으로 코트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쌍둥이 자매의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2월 15일 이들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가대표팀 자격도 무기한 정지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홈구장에서는 쌍둥이 자매의 사진과 포스터가 내려졌고, KOVO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있는 이들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들의 지도자 활동도 제한된다. 인권 침해는 지도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남자 배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월 13일 학폭 의혹이 제기된 OK저축은행 송명근·심경섭 선수는 이를 시인하고 앞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 운동부 시절 후배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다음 장 계속

자료 출처: https://www.fact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73

잇따른 논란에 배구계는 학교 폭력을 한 선수를 영구 제명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2월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신무철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사실상 이전부터 운동계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환경으로 인해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인은 알 수 없으며, 폭력이나 폭언, 성폭력 등의 가해가 있어도 은폐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논란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협회 등은 뜯어 고칠 부분은 뜯어 고치고, 사후 대처를 확실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실상 가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

A씨는 "운동부는 합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운동부 내 환경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무수히 많은 개선 방안이 제시된다 해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만연한 '성과 제일주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 스포츠는 승패가 가려진다. 점수에 따라 이기고 지기 때문에 성과가 뚜렷한 영역이다. 이 때문에 동급생 사이에서도 서열이 매겨져 위계가 만들어지는 기현상이 빚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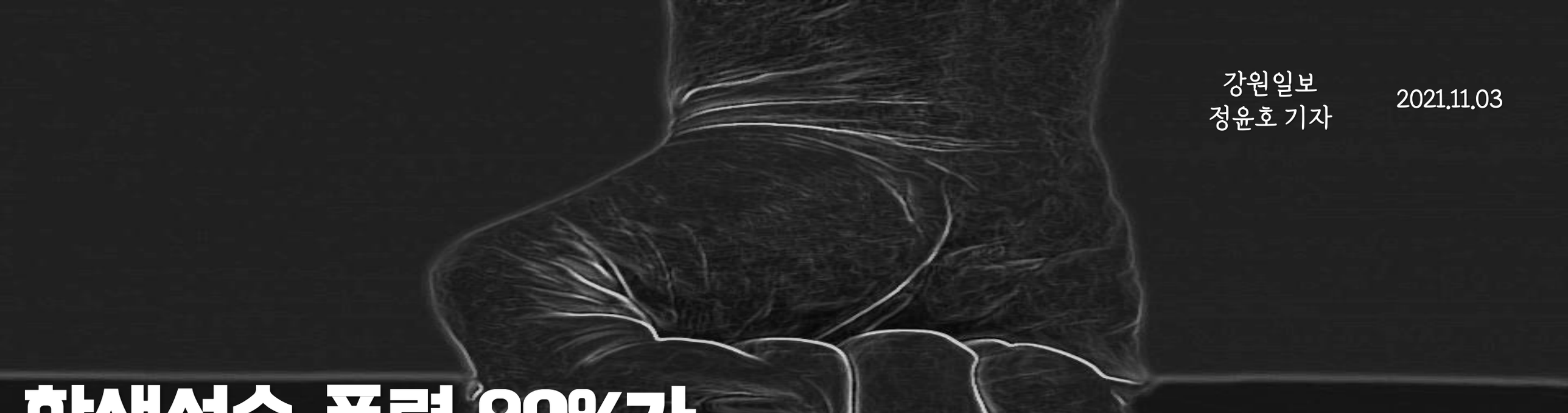
A씨는 "(선수들 사이) 폭언과 폭행은 주로 팀의 에이스들이 주도한다"며 "선배는 물론 동급생끼리도 주전과 비주전 간 무시발언도 만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도자나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엘리트 운동부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인데, 이 때문에 이들은 학생들을 '선수 육성' 측면에서 대하지 않고 그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선수 관리 및 인성 지도에 앞장서야 할 어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A씨는 "운동부 선수들은 학교 수업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부 선수들이 친구의 전부"라면서 "이 때문에 학창시절 폭언 폭행은 일반 학생보다 더 지우기 힘든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흥국생명 측은 남아 있는 선수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미희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과도한 관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남은 선수들이 더는 다른 요인으로 방해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자료 출처: https://www.fact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73



강원일보
정윤호 기자

2021.11.03

학생선수 폭력 80%가 선배·동료 괴롭힘

최근 1년간 강원도 내 학생선수가 겪은 폭력의 80%는 또 다른 학생선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도내에서 학생선수와 지도자 등 29명이 가해자로 지목돼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전국적으로는 351명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올 7~8월 도내 353개교, 4,135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2학기부터 1년 동안의 폭력 피해에 대해 물었다.

학생선수는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뿐만 아니라 개인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포함됐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29명 중 선배 학생선수가 12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동료 학생선수가 11명(37.9%)으로 뒤를 이었다. 감독, 코치 등 학교 운동부 지도자 3명과 학교 밖 체육지도자 1명도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 중 가해 학생선수 2명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서면 사과와 접촉·보복금지 처분을 받았고, 학생선수 2명과 지도자 1명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24명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학교장이 자체 종결지었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48명이 가해자로 지목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근절을 목표로 올 3월 학생선수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신설했다. 학생선수와 지도자, 학부모는 연 2회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도내 운동부 지도자 490여명은 시·군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부터 해마다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허남진 도교육청 문화체육과장은 “학생선수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를 갖췄고 폭력피해 사안 발생에도 엄중 대처하며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110200046

폭력 가해 선수, 내년부터 '체육특기생' 지원 못한다

[앵커]
지난해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부터, 최근 여자배구 이다영·이재영 자매의 학폭 폭로까지, 체육계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는데 학교폭력 가해자의 체육 특기자 지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감독과 동료의 상습적인 폭행과 괴롭힘으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인 3종의 고 최숙현 선수.

[최영희 /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스포츠인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거나 가혹 행위가 자행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이다영, 이재영 자매. 체육계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고, 해마다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학생 선수 폭력 가해자는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일) :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를 개선해서 학생선수 중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체육특기자로 선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전력으로 중·고등학교 때 선수생활을 하지 못하면 대학·프로 선수 진입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폭력 가해자는 선수의 경우 자격 박탈, 지도자는 해임이나 자격 정지까지 강력한 징계 조치가 진행됩니다. 교육부가 학생 선수 폭력실태를 조사했더니, 초·중·고 학생 선수 351명이 실제 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언어 폭력은 올해 51.7%로 늘었습니다. 학생 선수의 절반 이상이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겁니다.

[신광수 /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과장 :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생들의 접촉이 줄었고,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선배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료 111명,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가 47명이었습니다.

[홍덕기 / 경상대 체육교육과 교수 : 어린 나이 때부터 운동에 입문해서, 그들만의 폐쇄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오히려 체육특기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걸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게 사건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운동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번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체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여러 조치와 약속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폭력 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시에 소송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자료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70451419483

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2021.11.07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짓는 건설업체, 사유지 무단 침범

경남 진주에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스포츠가치센터를 짓는 건설업체가 신축부지 옆 사유지를 무단 침범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진주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50억원으로 내동면 삼계리 234-4 번지 일원 4만8천74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스포츠가치센터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6일 기공식을 했다.

이곳에는 다목적 운동장, 가상스포츠체험관, 다목적 실내 스포츠 체험관, 유스호스텔 등이 들어서며 2023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기공식 이후 센터 신축을 맡은 A업체는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신축부지 옆 사유지(임야) 1천481㎡를 무단 훼손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산주 B씨는 "이곳은 밤나무 재배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A업체가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단 침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특히 그는 "A업체가 사유지를 무단 침범한데다 밤나무 수십 그루까지 훼손해 건설업체 대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A업체는 현재 해당 임야에 천막을 치고 인근 지역에서 신축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해당 임야는 신축부지와 인접한 경사지로 비가 오면 토석이 현장으로 흘러들어 산주와 상의 없이 우선 정비한 것"이라며 "산주와 원상복구 등을 의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hchi@yna.co.kr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3108900052?input=1195m

체육의 공정과 상식에 대해

2021.10.31

김병선
충북도체육회
사무차장

금년 전국체전에서 석연치 않은 편파판정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의 승패가 바뀐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다. 이번 전국체전에 핸드볼 충북대표로 나간 일신여고 얘기다.

지난 10월 열린 102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핸드볼 결승전에서 일신여고는 강원 대표인 황지정보산업고에 25-26, 1점차로 패하면서 눈앞에 뒀던 금메달을 놓쳤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 국민청원에 오른 이유다.

종합하면 경기종료 3분여를 남기고 24-22로 앞서가던 일신여고가 이후 3명이 2분간 퇴장을 당하면서 역전패한 것인데, 과잉동작(할리우드액션) 판정으로 1명, 이 과정에서 벤치의 항의가 있어 벤치 경고 누적(2회)으로 1명, 상대의 스로우를 방해했다고 해서 선수 1명 등 모두 3명의 선수가 퇴장당했다.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고 경기는 뒤집혔다.

편파적인 운영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결승전 승부처에서 한 팀 선수 3명이 퇴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경기가 끝난 뒤 편파판정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편파판정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이다. 청원내용에는 단순히 심판에게 문의하는데도 경고를 줬고, 양쪽 벤치에 편파적 규칙 적용, 기술임원들의 도 넘은 관여 등이 언급되어 있다.

필자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한다. 스포츠계가 외형적으로는 스포츠인권을 강조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운영 등 그럴듯하지만, 실상 내부적으로는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페어플레이정신과 준법정신, 사회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갈수록 선수수가 줄어든다고 선수발굴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불공정함으로 인하여 학생선수들의 경기에서 불신이 조장되고 학부모들로부터 괜히 운동을 시켰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스포츠계의 불공정은 결국 피땀 흘려가며 오롯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는 선수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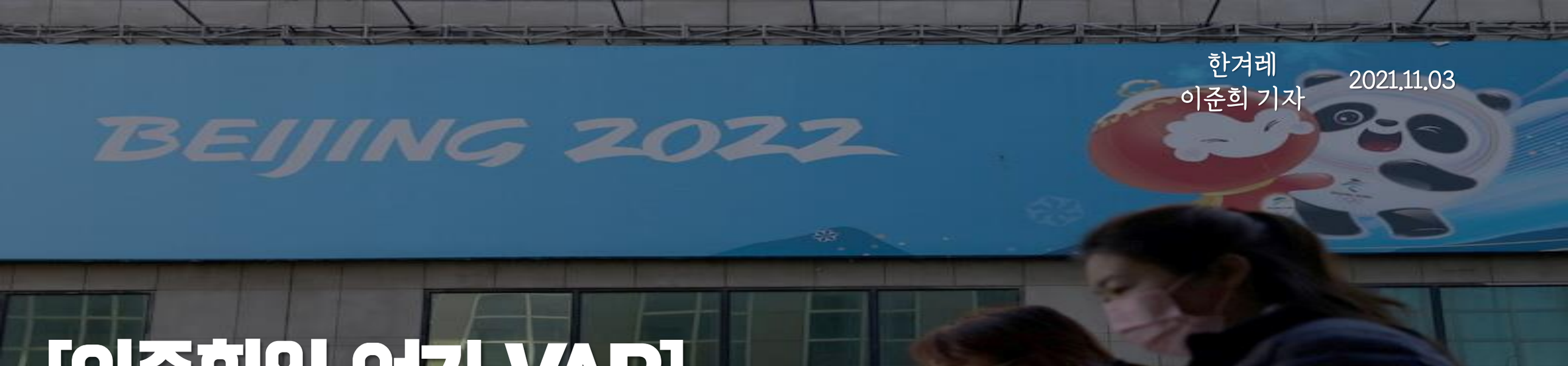
"학생들의 경기인데, 선수들이 받는 상처는 누가 치료해줄 것인가.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는 한 관계자의 귀띔이 귓전을 맴돈다. 눈으로 보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가 지향하는 정정당당히 승부하고 결과에 만족할 줄 아는 교훈을 찾을 수 있겠는가.

스포츠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은 중요하다. 심판의 결정은 감독과 선수에게 절대적이다. 심판에 따라 경기의 흐름과 결과가 뒤바뀌기도 한다. 오심이나 오판, 또는 편파판정 등이 나왔을 경우 선수나 관중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현재 상임심판제는 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실상 운영을 해당종목에 위탁함으로써 해당종목에 예속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상임심판도 제3의 기관(단체)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판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디오보조심판(VAR)도입, 심각한 불공정함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판의 권위는 공정한 판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말한다. 공정은 스포츠에 있어서 가치이자 규범이다. 반칙과 편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과, 교육적 가치를 무너트리는 행위가 자행되는 것이 우리나라 체육의 현주소는 아니다.

이번 국민청원으로 승패가 뒤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차후에라도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와 공정함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공정이 사라지지 않고는 체육의 미래는 없다.

자료 출처: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15



[이준희의 여기 VAR] ‘언론 통제’ 베이징올림픽…누구를 위한 대회인가

한겨레
이준희 기자

2021.11.03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이 약 3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2008년에 이어 베이징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이다. 베이징은 이번 대회를 치르면 세계 최초로 여름·겨울올림픽을 모두 치른 도시가 된다. 하지만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년 전보다 악화한 중국 내 인권과 자유 의식 때문이다.

중국 외신기자협회(FCCC)는 2일 성명을 내 “중국 내 외신 기자들의 올림픽 관련 취재가 1년 넘게 방해받고 있다. 각종 행사와 스포츠 경기장 방문도 거부당했다”며 “올림픽 보도에 있어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투명성 결여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언론 통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2008 베이징올림픽 때도 중국은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저자세’를 유지하며 언론 자유의 보장을 약속했다. 200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이오시 총회에 참석한 중국 쪽 대표는 ‘올림픽 기간 중국 내 민주화운동과 강제노동수용소를 취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에 오는 기자들은 어떤 것이든 취재할 자유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이 중국의 인권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달라졌고, 이제 그들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국가가 됐다. 쉬궈치 홍콩대 역사학 교수는 <에이피(AP) 통신>에 “두 베이징올림픽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08 베이징은 세계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2022 베이징은 나머지 세계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도 중국의 언론 통제를 돕는 모양새다. 실제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베이징 2022 플레이북’을 보면, 모든 올림픽 참가자는 경기장과 호텔 등 정해진 동선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 중국 국민과의 접촉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각종 소수민족이나 인권 탄압 피해자 취재는 아예 불가능해진다.

아이오시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올림픽 헌장 제48조를 보면, 아이오시는 다양한 언론매체의 보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또 올림픽 취재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도 아이오시에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베이징조직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 정도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해결 의지 자체가 부족해 보인다.

2008년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은 여름올림픽 총괄책임자였다. 그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가주석 자리에 올랐다. 최고 권력자가 된 시진핑은 이제 겨울올림픽을 발판으로 내년 10월 열릴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세 번째 임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사이 올림픽으로 인해 향상될 것이라던 중국 내 인권 문제는 뒷걸음질 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선 167위(2008년)에서 177위(2021년)로 떨어졌다.

과연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 베이징올림픽이 아닌 ‘시진핑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진정 아이오시가 정치가 아닌 올림픽 정신을 위한 조직이라면 취재의 자유부터 보장해야 한다.

자료 출처: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017812.html

뉴시스
최영서 기자

2021.11.01

국제 핸드볼연맹, 성 상품화 논란 비키니 규정 → 반바지로 변경

국제핸드볼연맹(IHF)은 비키니 형태의 상·하의로 제한했던 여성 유니폼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자 반바지와 민소매 복장으로 변경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IHF는 지난 한 달에 걸쳐 비치 핸드볼 복장 규정을 바꿔 현재는 "여자 선수들은 몸에 꼭 맞는 짧은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유럽핸드볼 연맹(EHF)은 유로 비치핸드볼 선수권대회에 반바지를 입고 출전한 노르웨이 여자 비치 핸드볼 팀에게 1500유로(약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EHF는 반바지를 '부적절한 복장'이라 칭했다.

당시 미국 팝스타 핑크는 노르웨이 여자 비치핸드볼팀을 지지 의사를 밝히고 "매우 성차별적인 규정을 반대한다"며 벌금은 내가 대신 내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아비드 라자 노르웨이 문화체육부 장관 역시 "완전히 터무니 없다"고 표현했다.

지난 달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유럽 5개국 스포츠 장관들은 IHF에 공동 서한을 보내 "성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스포츠에 남을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며 '구식 복장 규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노르웨이의 성 평등 인권단체는 "이것이 스포츠에서 여성 차별 및 대상화에 대한 종말이 시작되길 바란다"며 "미래에는 모든 여성들이 성희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뀐 규정은 여성이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몸에 꽉 맞는' 복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남성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같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남자 선수들은 "너무 헐렁하지 않다면" 무릎 위 10cm까지 일반 반바지를 입을 수 있다.

여성 운동선수들은 복장 규정에 대한 이중잣대에 수없이 목소리를 냈다. 여성들은 육상, 비치발리볼, 테니스를 포함한 여러 스포츠에서 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야 한다.

2011년 세계배드민턴연맹은 여자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기 위해 치마나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자료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1_0001634936&cID=10101&pID=10100

주간 스포츠 소식

[사설]학생선수 폭력,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어렵다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110300057

동계올림픽 보이콧 우려속 中 외교부장 유럽 동분서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01105105098O3

스포츠 선수 역대 수입 1위 조던…2위는 우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3748&plink=ORI&cooper=NAVER

[거꾸로읽는스포츠] 프로 스타 넘치는 성 욕구 관리 안 되나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02151123223222

전남 해남군, 각종 체육행사 재개"스포츠도 일상회복"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04500

체육진흥공단, 프로스포츠협회와 스포츠토토 건전화 위한 협약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5_0001640738&cID=10501&pID=10500

스포츠토토 관리 구멍…선수 등 제한대상자가 구매·당첨금 수령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4089500001?input=1195m

탁구 프로화·스포츠 외교에 '동분서주'...30대 회장님 유승민의 고민은?

https://www.ytn.co.kr/_ln/0107_202111070823237835

중국 "동계올림픽 취재 환영…스포츠 정치화 단호히 반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5143800083?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